



이정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필가

## 철쭉제, 물꽃제

올 일월에도 내 집 현관에서 철쭉이 피어났다. 제 계절에 피는 것만큼 붉은 빛은 아니어도, 제법 진분홍빛에 가까운 게 꽃송이는 오히려 더 탐스럽다. 게다가, 몇 년 키우는 사이에 아주 많이 뻗어나간 잔 가지의 끝에서 마다 봉오리가 맺혀 얼마나 웅골차게 피어나는지, 마치 철쭉꽃의 산 언덕 하나가 집 안으로 옮겨오기라도 한 것 같다.

꽃집에서 사올 때는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던 것을 작년에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자, 꽃나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키가 커졌다. 날씨가 차지면서 좁은 현관에 들여 놓고 난 뒤에는 부쩍 자라난 가지들이 벽에 닿아 제 뻗고픈 대로 뻗지 못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아도 안스러웠는데 꽃까지 피어나니 더욱 그렇다.

가지가 서로 얽힌 속에서 구겨진 모양새로 피는 꽃을 한 송이라도 더 제대로 피게 하려고 화분을 앞쪽으로 좀 끌어당겼더니만, 현

관은 아예 철쭉꽃으로 꽉 차버렸다. 그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 내 집에서 철쭉제라도 열리고 있는 양 들뜬 기분이 됐다.

제 계절이 아닌데 꽃이 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환희이런만, 거기다 저토록 탐스럽게 가지가 휘어져라 하고 붉은 꽃이 연이어 피어나고 있으니.

올해엔 정말 기쁜 일이라도 생기려나.

그것은 작년 일월에도 거의 흡사하게 품어 보았던 소망이었다. 밖엔 흰 눈까지 쌓였는데, 그 때도 현관에서, 옅은 진분홍빛 철쭉이 스무 송이 남짓 피어났었다. 처음 사오던 해에 꽃을 보고는 벌써 이태째 이파리만 무성한 채로 봄을 보내곤 하다가, 한겨울에 집 안에서 꽃을 피어주니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랐다.

별이 좋은 제 때에도 꽃이 피지 않았던 터라, 현관에 들여다 놓은 지 얼마가 지나면서 가지 끝에 무

언가 맺히는데도 꽃망울이라고는 생각조차 았았었다. 여름에 푸르렀던 이파리는 다말라서 떨어지고 마른 가지만 남아 있었기에, 그저 새순이 돋아나려는 것으로만 여겼었다.

한데, 처음엔 연녹빛을 띠던 망울이 차츰 분홍빛으로 바뀌어 가기에 그제서야 혹시 꽃이 피어나려는 게 아닌가 해서 유심히 지켜보았더니, 어느날 제일 통통하던 망울이 하나 벌어지며 꽃을 피우는 거였다. 그리고나자, 다른 망울들도 아주 더디게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해서는 꽤 오래 피어 있었다.

피어나는 철쭉꽃을 기쁨에 차서 바라보는 동안, 내 머리 속에서는 철쭉꽃의 축제가 연상됐다. 말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 지리산과 한라산의 온산이 타는 듯하다는 그 이름난 철쭉제가.

해마다 오월이면 지리산 세석고원 일대에는 붉은 철쭉꽃이 만

발하는데, 유월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그곳에서 열리는 철쭉제에는 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흐드러지게 핀 철쭉꽃이 자아내는 정취에 흠뻑 젖는다고 들었다.

내가 지리산에 갔을 때는 팔월이라, 그 세석고원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머물면서도 철쭉꽃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꽃은 이미 저서 자취가 없고.

잔들이 깔린 너른 비탈에 질푸른 잎새만으로 서있는 철쭉을 바라보며, 저들이 모두 붉은 꽃을 피우면 듣던 대로 장관을 이루겠구나 하는 상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은 유난히도 붉게 철쭉꽃이 피어난다는 한라산에 가셔도 마찬가지였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어느 선생님에게서, 오월이면 철쭉꽃이 일제히 피어나, 수업을 하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면 산기슭이 온통 불 붙는 듯이 다가오곤 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꼭 한 번 보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내가 한라산에 갈 기회가 생긴 것은 십이월 말이었다.

한라산에 속한 영실이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나타나는 1100m 고지에도 늦봄이면 철쭉꽃이 만발한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철쭉꽃대신 눈꽃이 한창이었다. 비쳐드는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는 눈꽃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감탄을 자아냈지만,

철쭉꽃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그래도 남았었다.

한데 의외인 건, 철 이르게 피어난 내 집 현관의 철쭉꽃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가슴 한 편에 남겨 두었던 그 산들의 철쭉꽃 축제에 대한 미련이 어느 만큼 가시어 간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지 한겨울에 꽃이 피어 났다는 사실만으로 흐뭇하던 것이, 나중에 철쭉꽃이 너른 기슭을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는 그 알려진 산의 철쭉제보다 지금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몇 송이 철쭉꽃의 축제가 오히려 더 의미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뿌듯해 왔다.

오월이면 열리는 그 산의 철쭉제가 그 무렵 산을 찾는 모든 이들의 것이라면, 철을 한참 앞당겨 내 집에서 열리고 있는 이 조출한 철쭉꽃의 축제는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일테니, 그것을 마침 새로 시작된 한 해의 상서로움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그 설레임 안에서 옛 시가 속의 여인이 떠오르는 건, 그녀 역시 붉은 철쭉꽃에서 지금의 내가 안아보는 것과도 같은 감정을 품었으리라 여겨져서일까.

‘자준빛 바위는/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진댄,/ 저 꽃 꺾어 바치오리다.’

신라 선덕왕 때 한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며 불렀다는 노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

다. 강릉 태수도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가는 도중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절벽 끝에 붉은 철쭉꽃이 만발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뉘를 잃고 그것을 바라보던 수로부인은 누가 가서 꽃을 한 가지만 꺾어다줄 수 없겠느냐며 아쉬워 했지만, 하인들은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었다.

그 때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모양을 지켜보고는, 내가 꺾어다 드리리다 했다. 노인은 소를 바위에 매어놓고 나는 듯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 바치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그 노래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향가 ‘현화가’인데, 기암 절벽을 그리도 수월하게 올랐던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필경 신선이었으리라는 이야기도 있다.

수로부인이 손에 닿지 않는 철쭉꽃을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 아름다움에만 끌려서였을지. 아니면, 내가 그러하듯이 그 꽃을 앞날에의 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서였을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해가 시작될 무렵 내 집 현관에서 피어난 철쭉꽃이 ‘현화가’에 나오는 철쭉꽃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지던 지난 해, 난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 바닷속 언덕에 진홍

빛으로 만발해 있는 물꽃들의 축제를, 내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볼 수 있었던 아직도 믿기지 않는 가슴 벅찬 환희.

바닷속을 향해 품어온 막연한 동경이, 봄 들면서 진작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해온 가까운 이의 권유로 구체화되었을 때, 나는 우선 물꽃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다.

‘바다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물꽃을 처음 대한 건, 10년 전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였다. 바닷속에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던 나는 어떻게든 남편을 졸라, 대국 해저관광에서 운행하는 서울-제주간 항공료보다도 승선 요금이 훨씬 비싼 ‘노란 잠수함’을 기어타 보고야 말 작정이었다.

처음엔 영 탐탁치 않아 하던 시어머님께서도 서귀포 문섬 앞 바다에 떠 있는 그 잠수함을 타고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닌 렌즈로 된 동그란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바닷속 풍경에 입을 못 다물고 감탄사를 연발하셨다. 남편과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산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계곡과 언덕에서 자라는 해초며 그 사이를 오가는 색색 가지 물고기애 아예 낫이 나갈 정도였다.

안내를 맡은 사람에게서 ‘물꽃’이라 불린다는 설명을 듣고 본, 붉은 꽃이 핀 가지가 포기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는 맨드라미 산호초는 말 그대로 꽃을 연상시키

고 남았다. 그러다 한 잠수부가 밖으로 나가 진자줄빛 성계와 불가사리등을 잡아 보여주는 모습을 대하고서는, 아! 나도 한 번 저래볼 수 있었으면 하고 신음소리가 흘러 나올 정도였다.

놀랍게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가족들의 이해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이빙 강습을 마치고 나서 몇 달 후인 지난 여름. 방학을 하자마자, 다이빙을 하는 몇몇 사람과 함께 제주도를 향해 떠났다. 모슬포 바닷가에서 한 이틀 다이빙을 하고는, 서귀포에 있는 다이빙·숍을 찾아가 다음날 문섬에 가기로 미리 약속을 했다.

장비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모기가 많아 문섬이라고 불린다는 그 섬앞에 있는 엄지바위에 내려서는 끈장 입수할 준비를 했다. 말할 수 없이 고대해온 일이면서도, 막상 출렁이는 잉크빛 바닷물 앞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나를 보고는 동행한 이들이 용기를 내라고 복돋워 주었다.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매어져 있는 하얀 하강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 가노라니, 그 때 잠수함을 타고 보았던 절벽면에 무수히 피어 있는 붉은 물꽃들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가슴에서 차올라 숨마저 멎는 듯했다. 다이버들이 저 물꽃이 유난히 많이 피어 있는 곳을 일컬어 바닷속 꽃동산이라고 한다더니, 가히 물꽃의 축제라 불러

도 좋으리라 싶었다.

‘바다 맨드라미’라고 불리우는 그 물꽃은 원래 화충류(花蟲類)인 산호의 일종으로, 뼈대가 없이 물렁물렁 한 몸체에 살아 있을 때 꽃같이 펼쳐지는 여덟 개의 촉수인 폴립이 서로 붙어 자라는 연산호(Soft coral)에 속한다고 들었다.

연산호 중에서도 다양한 색깔이며 꽃가지를 이룬 모양새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하지만, 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내 우글우글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바닷속에서가 아니면 그 화려한 자태를 결코 마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물꽃만이 지닌 신비로움이었다.

수심이 깊어 공기 잔압계의 눈금이 똑똑 떨어지는 탓에, 온종일이라도 머물며 싫도록 바라보고픈 그 물꽃들을 뒤로 하고 나올 때는 그래서 저절로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어쩌면, 그러한 물꽃들의 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허여된 내 삶에 대한 기쁨의 눈물인지도 몰랐다.

한겨울 스무 송이 남짓 피어난 철쭉꽃을 보았던 지난 해에 바닷속 물꽃제의 꿈을 이루었으니, 그 붉은 철쭉꽃이 가지가 휘도록 다 시금 피어나 준 올해에는 또 어떤 가슴 떨리는 꽃의 축제를 보게 되려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려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어 음을 느끼겠다.